

The Reunified Korean Economy

月刊

統一經濟

1995. 11 통권 제11호

現代經濟社會研究院

권 두 언 / 체제 우위와 민족 통일 / 김호진 2

특별기획 북한 전문가 지상 토론

김일성 사후 1년, 북한의 정치·경제 정세와 대외 관계 / 5

이달의 초점

북한은 우리의 무엇인가 / 이종길 38

시사특집

북한의 경제난, 무엇이 문제인가

- 북한 식량난, 그 배경과 전망 / 김운근 44
- 북한의 체제와 에너지난 / 정우진 53
- 북한의 생필품난과 경공업 정책 / 이태섭 59

연구논단

- 최근 북한의 대외 경제 관계의 동향과 전망 / 김용호 72
- '적과의 동침' 혹은 '적과의 협상' / 김재한 81
- 독일 통일 과정과 동독 사회의 변화 / 윤도현 95
- 북일 수교와 경험 전망 / 이종훈 104

내가 겪은 북한

변화하지 않는 북한 / 아드리안 부조 116

인물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5) / 유명구 121

통일다리

편의 봉사망과 북한의 상업 / 주강현 131

독자기고

통일후 북한 지역의 토지 소유 제도에 관한 연구 / 이진욱·조이규 134

체제 우위와 민족 통일

김호진 / 고려대 정외과 교수

하나의 민족이 통일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민족적 명제이다.

그러나 한국은 1945년 강대국의 분할 점령으로 분단된 이래 아직도 통일 국가 건설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남북 대치의 비극적 현실을 역사의 빙에처럼 지고 있다. 1990년대 들어오자 구소련의 붕괴와 동서 냉전의 종식으로 분단 구조의 외곽이 허물어지고 적화 통일을 주장하던 김일성마저 사망(1994. 7. 8)함으로써 남북이 하나의 국민 국가를 새로이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국내적으로도 산업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 여파로 사회 성원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통일 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 경제적 토대가 크게 강화되기도 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해 볼 때 한국은 조만간 통일 과업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통일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면 한반도 통일은 예상외로 빠르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상징하는 통일 국가의 모습은 그것이 단일 국가 형태를 취하는 연방제 국가 형태를 취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본틀로 해야 한다는 점에는 반론이 있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상징되어 오던 사회주의 체제는 역사의 검증에서 부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전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결과 북한 정권과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우위성을 신봉하게 된다면 민족 통일은 더욱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시독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동독을 흡수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독 체제의 질적 우위성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이 이 점을 말해준다. 45년에 걸쳐 전개된 서독과의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동독 국민들은 부와 자유를 만끽하는 서독 국민들의 삶을 한없이 부러워하게 되었고 남기야 그들은 베를린 장벽을 넘어 서독으로의 대탈출을 시도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서독은 동독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전 승리를 거두었고 그것은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로

귀착되었다.

요컨대 통일 이전 서독의 체제는 권력을 나누어 갖는(power sharing) 다원민주주의와 부(富)를 나누어 갖는(welfare sharing)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를 동시에 향유하면서도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했었다.

그러나 동독 체제는 인간의 소유 본능과 자유 의지를 철저히 억누르면서 효율성보다는 분배 정의에 더 역점을 두었고 그 결과 경제는 파탄되고 국민들은 인간 이하의 삶을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서독인들이 복지 제도를 거의 완비하고 실업자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사회권(social right)까지 향유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되는 삶의 수준이요, 질이었다.

한국은 어떤가. 우선 국민경제의 총량 지표만 가지고 보면 한국 경제도 이제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고, 북한의 경제 수준과 비교할 경우 선·후진국 관계가 분명해진 것도 사실이다. 정치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한국 정치는 적어도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이룩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로 일컬어지는 지방자치 제도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 즉, 분배 정의와 형평면에서 볼 경우 한국 사회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효율성 역시 국가 경쟁력의

관점에서 볼 때 낙관할 입장이 못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한편으로는 통일 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세련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회 성원들이 자유·복지·효율·형평·정의·자존 등과 같은 기본 가치를 불만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개혁 작업을 과감하게 전개해야 한다. 단적으로 말해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 곧 통일로 통하는 지름길이며, 그 길을 더욱 순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개혁작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기본 가치들은 정책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할 여지가 많으며, 특히 자유와 효율 및 형평은 갈등 관계를 유발하기 쉬운 법이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이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한국 사회가 먼저 절적 우위성을 강화한 다음 민간 차원에서의 사회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켜 북한 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우위성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케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효과적이다. 이렇게 '선 우위성 강화, 후 교류 확대'의 접근 방식을 고수하면 남북한도 동서독처럼 기능주의 방식에 의한 체제 통합을 순조롭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